



한울림 교회

방송설교

KRB(FM87.7)
토 6:30pm / 주일 6:30AM

단비 TV
본방-토 9PM/재방 월 11AM

Youtube - 한울림TV

www.hpcny.org
hulpcny@gmail.com

섬기는 사람들

전도사

차유미

목사

김원재, 양명철, 한성욱

주일예배

오전 11시

예배 인도: 김원재 목사

교회소식

인도자

왕 같은 제사장 서약식(졸업식)

선교기도

7월의 선교사(조성우)를 위한 기도

다같이

찬양*

주 우리 하나님(찬 14)

다같이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보혈

기도인도

인도자

봉헌*

만 가지 은혜를(찬 216장 4절)

다같이

말씀교독

사도행전 17:10-15

다같이

특별찬양

팔복

샤마임찬양대

말씀선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박성주목사

찬양과결단*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찬 520)

다같이

축도*

인도자

* 일어서서

(서기 힘든 분들은 앞쪽으로 와서 앉으시거나

그 자리에서 앉아 계셔도 됩니다)

1.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2. 7월의 선교사는 조성우 선교사(러시아)입니다. 소식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3. 오늘은 왕 같은 제사장 서약식(졸업식)이 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으로 그리고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올라가는 친구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강송, 강혜리, 최서빈)
4. 7/24(토)부터 9/4(토)까지 7주간 2021 Back to school 새벽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새로운 학기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손잡고 시작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온 교인의 기도로 서포트 받는 아이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5. 큐티책 8월호가 나왔습니다. 구입하셔서 큐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문의 - 박순정)
6. 오늘 예배 후 1시에 친교실에서 사역자 훈련이 있습니다. 직분자들은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7. 예배 후 나가실 때, 손소독제와 마스크를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찬조 - 김유진)
8. 새 예배당 준공검사를 마치고, 사용허가를 받아 속히 입당하도록 모두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9. 새벽기도회는 오전 5시 30분(월~토)에 Zoom을 통하여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현장기도회와 영상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Zoom ID: 3213210608 / PW: 0608
10. 우리 교회 설교가 KRB 라디오방송(FM 87.7 토 6:30PM, 주일 6:30AM) 단비 기독교TV(토 9:00PM, 월 11:00AM), youtube의 한울림TV(설교와 칼럼)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도의 수단으로 삼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전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교회

트럼프 대통령 시절, DACA 법령이 해제 되면서 그 대안으로 국회에서 새로운 법이 만들어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략적 입장과 여러 국내외 사정으로 인해 연기되어 왔습니다. DACA 세대 뿐 아니라 많은 이민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27개 교회가 같이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한울림교회는 7월 29일 목요일 오전에 맡아서 하기로 했습니다. 새롭게 이민법이 개정되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7월 29일 목요일 오전에 한울림교회 성도들은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DACA는 물론이고 서류미비자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법이 만들어지도록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현재 새벽기도회는 토요일만 현장에서 모이고, 나머지 날은 비대면으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월부터 현장새벽기도회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또한 어제(7/24)부터 토요일새벽기도회가 “Back to School” 특별새벽기도회로 7주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새벽에 많이 나왔습니다. 어른들은 참여율이 조금 저조합니다. 우선은 토요일새벽기도회에 현장에 나올 수 있는 분들은 함께 나와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는 습관이 흐트러졌습니다. 조심하는 것은 맞는 일이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어떤 모임에도 나가지 않는다면 몰라도 다른 일로는 모임에 참석하고, 밖에도 나가면서 교회 모임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제 두려움을 떨쳐내고,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이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비대면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도 있지만, 그것은 최소한 것이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조심하면서도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을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